

포장 교육 환경개선 노력

다양한 실무경험 살려

이성호 / BIGS PACK 대표

이번 포장기술사 합격자 명단에 이성호 사장의 이름이 있었다. 포장기술사 자격증 취득은 포장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 및 마지막 코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성호 사장은 “이를 계기로 기술사로써 포장산업에 새롭게 뛰어 들 수 있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”라며 기쁨으로 들뜬 모습보다는 기술사로의 각오를 이야기했다.

이 사장은 아주대학교 화공과를 졸업했으나 포장디자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뒤늦게 홍익대학교원에서 포장디자인을 전공하여 지금은 포장과 디자인 전문지식을 고루 갖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.

이성호 사장은 동양제과(주)와 제일제당(주) 마케팅실 포장팀에서 많은 경력을 쌓던 중 일본으로 건너가 제일제당(주) 일본 동경테크니칼센터에서 포장개발, 포장기술, 포장디자인부분 연구 및 HIT상품 개발 등 좀더 심도 있는 연구로 일본포장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. 깊이있는 실무경험과 일본에서의 연구를



바탕으로 이번 포장기술사 자격증 또한 무난하게 취득할 수 있었다. “실무와 연구를 한번에 병행한다는게 쉽지가 않았어요. 하지만 최고에 도전하여 폭넓게 활동하고자하는 일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 이같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”라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 놓기도 하였다.

현재 이성호 사장은 BIGS PACK을 운영하고 있으며, 앞으로 일본포장관리사에 관심있는 내국인을 상대로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 한다. “일본은 각 Part별로 나뉘져 깊이있는 연구와 현장실습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균형잡힌 포장개발을 하는 반면, 우리나라는 한곳에만 너무 치우친 발전으로 불균형적인 연구뿐 아니라 교육환경 또한 너무 취약한 것 같다.”라며 우리 나라 포장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했다. “앞으로 포장업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.”라는 이성호 사장에게서 기술사로서의 폭넓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. ☐